

## 고전문학 번역에서의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고찰: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번역을 중심으로\*

허 명 수  
(한동대)

### 1. 서론

고전문학을 번역할 때 가장 혼란스런 문제 중 하나가 외래어 혹은 외국어 표기법이다.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 및 문학작품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원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옮겨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어로 재번역 혹은 중역되어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야기되었다. 더욱이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서 1986년의 ‘외래어 표기법’으로 변화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렇다고, 1986년에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번역 작품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표기법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례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표기 세칙’에 실례가 담겨있기는 하나, 이것 역

---

\*이 논문은 2010년 한동대학교 교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시 외래어의 특수한 표기에 대한 제한된 단어만 있고 외국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고전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인명을 올바르게 표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번역되어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희극인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한여름 밤의 꿈』은 그리스어 어원의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된 이름, 영국식 이름이 섞인 등장인물들이 많아 여러 한글 번역본에서 표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적합한 작품이다. 영국의 무대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인명을 영어식으로 발음하였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한국어로 표기할 때 번역가들은 그리스 발음으로 표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셰익스피어 당시의 무대에서 사용되던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떤 것이 굳어진 표현인지, 또 굳어진 것만 그리스 식으로 발음하고 같은 그리스어에 나온 이름인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판정하기에 매우 난감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번역가마다 다른 잣대로 표기를 하게 되어 번역물을 읽는 독자나 그 번역물을 토대로 무대에 올린 극장에서 청중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셰익스피어 출생 400주년이 되던 1964년을 전후하여 셰익스피어전집이 번역되어 나오던 초기 시대부터 이런 표기에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1986년에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되면서 장모음이 사라지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통일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후 25년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에도 이 작품이 발간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번역본에도 역시 통일성이 없다. 등장인물의 표기가 번역가마다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아테네의 공작인 ‘Theseus’는 ‘테세우스’, ‘티이셔스’, ‘티시어스’, ‘티시우스’, ‘시슈우스’, ‘시시어스’, ‘디슈스’로 표기되었고, 여주인공 Hermia는 ‘헤르미아’, ‘허머미아’, ‘허미어’, ‘허미아’, ‘허-미아’ 등으로 표기되었고, 장난꾸러기 요정인 ‘Puck’은 번역가에 따라 ‘픽’, ‘푸크’, ‘파크’, ‘퍼크’, ‘팍’, ‘퍽’ 등으로 표기되었다.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법에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표기법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각 이름별로

자세히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어 가장 합리적인 표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번역학적 논의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sup>1)</sup> 그러나 번역학 관점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조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중 유명우의 논문이 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유명우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요약하였다. 즉, 원어 차용(Zero Translation), 음성번역(Phonetic Translation), 의미번역(Semantic Translation), 한문번역 등 모두 4단계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Sports’라는 영어 단어가 번역되어 사용되는 용례는 다음 4단계로 구분된다.

1. [Sports]=원어차용(Zero translation)
2. [스포츠]=음성번역(Phonetic translation)
3. [운동·체육]=의미번역(Semantic translation)
4. [運動·體育]=漢文譯(Chinese character translation) (유명우 2000: 238)

유명우는 이 중에서 1과 2를 ‘외래어’라고 보았다. 그러나 상기 이론을 언급하면서 김정우는 1, 3, 4를 제외하고 2의 음성번역의 경우만 외래어라고 정의를 내려 유명우와 의견을 달리하였다(김정우 2002: 178). 필자 역시 김정우의 의견에 동의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영어의 원어차용을 외래어라고 할 수는 없고, 외래

1)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과정 및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연구는 황재성과 원홍연의 논문에서 잘 정리되었다. 황재성(2006)은 1982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논문과 저서 중 외래어 순화방안에 관한 논의, 외래어 실태에 관한 연구, 외래어 수용태도,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한 연구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원홍연(2009)은 외래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연도 별로 잘 정리하였다. 외래어의 개념, 표기 변천, 사용 실태, 외래어 순화 등 분야별로 나누어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어의 원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어 김정우는 외래어 표기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하나는 국어어문 규범의 체계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번역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 후자의 관점을 새롭게 도입하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정우 2002: 194). 김정우의 연구는 외래어 표기법을 번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비해서 이재호는 『문화의 오역』이란 저서에서 이윤기의 그리스 신화에 관한 번역서에 드러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리스어나 로마어의 표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평을 하였지만 많은 경우 이론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재호 2005: 193).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에서도 문학번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만 이것 역시 표기법이나 셰익스피어 번역은 다루지 않았다. 번역평가사업단처럼 현재 영미 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오역에 대한 지적과 나름대로 좋은 번역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것이 많다. 기타 문학번역에 연관된 여러 논문들도 번역 비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 혹은 현재의 번역 관행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의 초점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을 초점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영미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학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주로 『햄릿』을 중심으로 1920년부터 1990년 후반까지의 한국에서의 번역을 시대적으로 다루고 몇 가지 표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다루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논의는 초점이 아니었다. 이렇듯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유명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런 연구를 통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물론 영미문학의 한국어 번역시 인명을 포함한 고유명사의 표기에 일관성 있고, 올바른 표현의 모형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다. 본 연구를 위해 1959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번역본 중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번역한 신정옥과 김재남의 번역을 중심으로 총 18편을 선정하였다.

### 3. 현행 외래어 표기법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 한글학회(구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시작하여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1948년 ‘들온말 적는 법’, 1958년에 공포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거쳐 1986년 1월 당시 문교부가 ‘외래어 표기법’으로 고시한 것이다. 1986년 당시 7개의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가 포함되었지만, 이후 여러 나라의 언어가 추가로 공시되었다. 1991년에는 당시 문화부 고시로 동구권 5개국 언어(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아어)가 추가되었고, 1995년에는 문화체육부 고시로 북구권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가 포함되었다. 그 이후 2004년 문화관광부 고시로 동남아시아 3개국 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가, 2005년 문화관광부 고시로 기타 언어(포르투갈어, 네델란드어, 러시아어)가 포함된 외래어 표기법의 세칙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고대 언어인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대한 세칙이 간단하게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 중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번역 작품은 영어권에서 온 작품들이므로, 영어에 관한 예문이 많이 고시되었지만, 그것만으로 혼란을 막을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골자를 보면, 크게 5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3.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사용한다.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런 기본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세칙을 만들었다. 1장은 앞의 5가지 원칙이 다시 제시되었고, 2장에서는 각 언어의 표기 일람표가 포함되었고, 3장에서는 각 언어에 대한 세칙이 포함되었는데, 영어에 관한 세칙은 다른 언어보다 많은

10개가 고시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명 및 지명에 대한 표기 원칙은 제4장에서 고시되었는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항 :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현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Ankara 앙카라 / Gandhi 간디)

제3항 : 현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예. Hague 헤이그 / Caesar 시저)

제4항 :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예. Pacific Ocean 태평양 / Black Sea 흑해)

이 5개의 기본 원칙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굳어진 외래어의 관용’에 대한 범위이다. 세칙에서 이를 다시 제3항과 4항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명이자 주인공 이름인 ‘Julius Caesar’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이름의 현지음(로마어의 발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백과사전이나 역사책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이 이름이 영어로 발음되기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로도 표기된다. 외래어 표기법 3장 3항에서는 영어(제3국)의 표기가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만 보면, 카이사르는 사용이 되지 않고 오로지 시저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지음의 표기와 제3국에서 통용되는 표기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표기가 병행하는 경우는 이 외에도 많다. 먼저, 한자어를 사용하여 표기하던 20세기 초의 경향과 최근 현지음을 중심으로 표기하려는 경향, 이 두 가지 다 인정하는 경우이다. 지명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몇 가지 예를 보자. Greece가 그리스 혹은 희랍(希臘)으로, Netherlands가 네덜란드 또는 화란(和蘭)으로, Denmark가 덴마크 혹은 정말(丁抹)로, Turkey가 터키 혹은 토이기(土耳其)로, Russia가 러시아, 로시아(露西亞), 혹은 아라사(俄羅斯)로, Italy가 이탈리아 혹은 이태리(伊太利)로, France가 프랑스 혹은 불란서(佛蘭西)로, Spain이 스페인 혹은 서반아(西班牙)로 England가 잉글랜드 혹은 영국(英

國)으로 America가 아메리카 혹은 미국(米國, 美國)으로 표기되고 있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외국 명이 한자어로 사용되던 경우가 더 많았지만, 외래어가 점차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최근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주 사용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개 차용으로 표기되는 예가 더 많다. 그런데 영어식 표기와 현지음의 표기가 달라서 두 개의 표기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그리스어나 로마어(라틴어)가 원어인 경우 대부분 영어를 통해 세계문학이나 한국 문학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표기법이 현지음과 영어음이 같이 사용되어 독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인명이나 문학작품 이름에 이런 예가 많이 눈에 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Ἡμῆρας(호메로스)와 Homer(호머), Ὀδύσσεια(오디세이아)와 Odyssey(오딧세이), Vergilius(베르길리우스)와 Virgil(버질), Aeneis(아이네이스)와 Aeneid(이니드), Hieronymus(히에로니무스)와 Jerome(제롬), Julius Caesar(율리우스 카이사르)와 Julius Caesar(줄리어스 시저) 등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 이름들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이런 작품들을 직접 원어로 읽기보다는 대부분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읽었고, 또한 영문학을 강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이나 그들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자신들이 익숙한 영어식 발음과 표기를 하였기에 오늘날 영어식 표현이 오히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카이사르보다는 시저라는 영어식 표기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4. 『한여름 밤의 꿈』 번역본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을 맞이한 때였다. 세계적으로 그의 삶과 작품을 새로이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한국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연이어 공연되었고 번역되었다. 그 중 괄목할만한 것이 셰익스피어 전집 발간이었다. 같은 해 7월에 김재남의 번역으로 셰익스피어 전집이 휘문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10월에는 19인의 영문학자들이 번역한 셰익스피어 전집이 정음사에서 출간

되었다. 이 중 『한여름 밤의 꿈』은 김갑순이 번역하였다. 신정옥은 1959년부터 1989년까지 30여년에 걸쳐 셰익스피어 전편을 번역하였다. 이덕수도 조만간 전편을 번역한 세 번째 번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여름 밤의 꿈』이 번역된 최초의 기록은 신정옥이 1959년에 발간한 단행본이다. 김병철은 1920년대에 이미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12편이나 번역된 것은 ‘기이감’(奇異感)마저 든다고 감탄하였지만(김병철 1975: 427), 정작 『한여름 밤의 꿈』의 기록은 없다. 아무튼 이 작품은 1959년 신정옥의 단행본 번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꾸준히 단행본이거나 셰익스피어 전집 혹은 세계문학전집 중 한 부분으로 발간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룬 18편의 『한여름 밤의 꿈』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신정옥의 1959년, 1997년, 2006년 번역, 김재남의 1964년, 1985년, 2007년 번역, 김갑순의 1964년과 1981년 번역, 김병철의 1977년 번역, 김영목의 1979년 번역, 김재모의 1982년 번역, 김우탁의 1995년 번역, 장은경의 1998년 번역, 오세곤의 1999년 번역, 이윤기-이다희 부녀의 2005년 번역, 이덕수의 2006년 번역, 이태주의 2008년 번역, 최종철의 2008년 번역, 봉현선의 2009년 번역이 대상이다.

이중에서 1986년 이전에 발간된 7개의 번역물은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 의거해서 외래어가 표기되었지만, 나머지 11개의 번역물은 1986년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표기되었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 그리스 등 외국의 이름에서 비롯된 등장인물이 10명이 되고 나머지 7명은 영어 이름이다. 그중 먼저 그리스 이름에서 비롯된 등장인물의 표기를 살펴보자.

	역자	1 신정옥	2. 신정옥	3. 신정옥
	출간연도	1959	1997	2006
1	Theseus	시슈우스	디슈스	테세우스
2	Hippolyta	히폴리타	히폴리터	히폴리타
3	Egeus	이지아스	이지어스	이지우스
4	Hermia	허.미아	허미어	허미아
5	Helena	헤레나	헬리너	헬레나
6	Lysander	라이샌더	라이샌더	라이샌더
7	Demetrius	데미트리어스	데미트리어스	드미트리어스
8	Philostrate	필러스트레이트	필러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9	Titania	타이테니아	타이테이니어	티타니아
10	Oberon	오베론	오우버런	오베론

	역자	4. 김재남	5 김재남	6 김재남
	출간연도	1964	1985	2007
1	Theseus	티시어스	티시어스	시시어스
2	Hippolyta	히폴리타	히폴리터	히폴리타
3	Egeus	이지어스	이이지이어스	이지어스
4	Hermia	허미아	허어미어	허미아
5	Helena	헬레나	헬레너나	헬레나
6	Lysander	라이산더	라이샌더	라이샌더
7	Demetrius	디메트리어스	디이미트리어스	디미트리어스
8	Philostrate	필로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필러스트레이트
9	Titania	타이타니아	티테이니아	타이테니아
10	Oberon	오베론	오우비이론	오베론

	역자	7. 김갑순	8. 김갑순	9. 김병천	10. 김영목
	출간연도	1964	1981	1977	1979
1	Theseus	티시어스	티이셔스	테세우스	테세우스
2	Hippolyta	히폴리타	힉폴리터	힉폴리타	히포리타
3	Egeus	이지어스	이지어스	에제우스	에게우스
4	Hermia	허어미아	허어미어	헬레나	헬레나
5	Helena	헬레나	헬리너	헤르미아	헤르미아
6	Lysander	라이샌더	라이샌더	리산드르	리샌테르
7	Demetrius	디미트리어스	드미트리어스	데메트리우스	데메트리우스
8	Philostrate	필러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필로스트라테	피로스트레이트
9	Titania	타이테니아	티타아니아	티타니아	티타아니아
10	Oberon	오베론	오우버런	오베론	오베론

	역자	11. 김재모	12. 김우탁	13. 장은경	14. 오세곤
	출간연도	1982	1995	1993	1999
1	Theseus	테세우스	티시우스	티시어스	테세우스
2	Hippolyta	히포리타	히폴리타	히폴리터	힉폴리타
3	Egeus	에게우스	이지우스	이지어스	에게우스
4	Hermia	헬레나	허머미아	허미어	헤르미아
5	Helena	헤르미아	헬레나	헬레네	헬레나
6	Lysander	리샌테르	라이샌더	라이샌더	리산테르
7	Demetrius	데메트리우스	디미트리우스	디미트리어스	데메트리우스
8	Philostrate	피로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필로스트라테
9	Titania	티타아니아	티타아니아	티테니아	티타니아
10	Oberon	오베론	오베론	오베론	오베론

	역자	15. 이윤기-이다희	16. 이덕수	17. 최종철	18. 봉현선
	출간연도	2005	2006	2008, 2009	2009
1	Theseus	테세우스	디셔스	테세우스	테시어스
2	Hippolyta	히폴뤼타	히필리터	히폴리타	히필리터
3	Egeus	아이게우스	이저스	이지우스	이지어스
4	Hermia	헤르미아	허미어	허미아	허미어
5	Helena	헬레나	헬리너	헬레나	헬레나
6	Lysander	뤼산드로스	라이샌더	라이샌더	라이샌더
7	Demetrius	데메트리오스	디미트리스	드미트리우스	드미트리어스
8	Philstrate	필로스트라테스	필러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필로스트레이트
9	Titania	티타니아	티테이니아	티타니아	티테니아
10	Oberon	오베론	오우버런	오베론	오베론

신정옥의 번역물들을 보면, 1959년, 1997년, 2006년에 발간된 것들이 서로 다르게 표기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재남 역시 1964년, 1985년, 2007년에 발간된 번역본들이 많이 다르고, 김갑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예이다.

### 5. 그리스 등 외국어 어원의 이름 표기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의 어려움은 어원이 그리스어나 로마어 등 외국어에서 온 경우에 더하다. 『한여름 밤의 꿈』의 배경이 그리스 아테네이므로 여러 주인공 이름이 그리스 이름인데, 로마자를 통해 영국에 소개되고 이를 다시 영어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이런 이름들의 어원이 된 그리스어의 표기와 로마화가 되는 과정에서의 라틴어 표기, 그리고 영어 표기와 발음의 변화 및 차이를 보면 한글로 표기하는데 많은 실마리를 찾게 된다.

1. Theseus는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Θησεύς(테세우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왕자로서 수많은 무용담이 전해 내려오는 인물로서, ‘doer’(행위자) 혹은 ‘man of action’(행동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연극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의 공작이며 아마존 여왕인 Hippolyta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리스어인 Θησεύς(테세우스)는 로마어에서는 Theseus(테세우스)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다시 영어권에서도 같은 철자로 사용되어 왔지만, 발음은 로마어와 달리 Theseus[θi : siəs](시시어스)로 난다.<sup>2)</sup>

위의 18명의 번역가 중에서 그리스어 발음에 따라 ‘테세우스’로 표기한 사람은 김병천, 김영목, 김재모, 오세곤, 이윤기-이다희, 신정옥(2006), 최종철 등 8명으로 제일 많다. 그리스 발음과 영어 발음을 섞어서 번역한 경우도 있다. 김갑순(1964), 김재남(1964, 1985), 장은경 등은 ‘티시어스’로 표기하였고, 김우탁은 ‘티이셔스’로 김갑순(1981)은 ‘티시우스’로, 봉현선은 ‘테시어스로 표기하였다. 반면에 영어발음 ‘시시어스’로 표기한 번역가는 김재남(2007)과 이태주 두 사람이다. 이와 비슷하게 신정옥(1959)은 ‘시슈우스’로 표기하였는데 ‘π’ 발음에 대한 근거가 없다. 또 신정옥(1997)과 이덕수는 ‘디셔스’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무성음 [θ]가 ‘스’로 유성음 [ð]가 ‘드’로 표기한다는 외래어 표기 세칙에 위배된다.

그리스어 표기를 따르자면, ‘테세우스’가 올바른 표현이다. 물론 연극의 무대가 그리스 아테네이기 때문에 그리스어 방식을 따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셰익스피어 당시에 영국 청중들에게나 현대 영어 무대에서도 그리스 식이 아닌 영어식으로 발음되었고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시어스’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Hippolyta는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Ἥπολύτη(히폴리테)라고 불리며 아마존의 여왕으로서 테세우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Ἥπόλυτος(히폴리토스)를 낳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Theseus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Hippolyta는 히폴리테의 로마화된 이름이고 영어에서도 같은 철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름의 뜻은 ‘Releaser Of Horses’(말을 풀어놓는 자)이다. 영어의 발음은 [hipólita](히폴리터) 혹은 [hipálitə](히팔리터)로 난다.

이 이름을 로마어(라틴어) 표기와 발음을 따라서 ‘히폴리타’로 번역한 사람은 김우탁, 이태주, 김재남(1964, 2007), 신정옥(2006) 등이다. 김재남(1985)과

2) 본고에서 사용되는 발음 기호는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발음 제공 사이트 (<http://engdic.daum.net>)를 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단어들을 참조하기 위해 한국어판 야후와 영어판 야후 사이트(<http://kr.search.yahoo.com>)를 같이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장은경은 영어 발음에 맞춰 ‘히폴리타’로 표기했고, 신정옥(1997)과 이덕수는 이에 근접한 발음인 ‘히펠리타’로, 신정옥(1959)과 김갑순(1964)은 ‘히펠리타’로 표기했다. 기타 표현들을 살펴보면, 최종철은 ‘히플리타’로 봉현선은 ‘히플리타’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p]나 [ɸ]의 발음을 무시한 경우이다. 김병천과 오세곤은 ‘힉플리타’로 김갑순(1981)은 ‘힉폴리타’로 표기했는데 이는 발음기호(전사법)보다는 철자(전자법)에 집중하다 생긴 현상인 것 같다. 즉, ‘p’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b’을 붙인 것 같다. 이 경우에는 철자보다는 발음 부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윤기-이다희는 ‘히폴뤼타’로 표기했는데 ‘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김영목과 김재모의 ‘히포리타’는 ‘i’(리) 음을 무시하고 표기한 것이다.

3. Egeus는 그리스 신화와 다소 다르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사용되었다. Αἰγέυς(에게우스)는 Hermia의 아버지로 등장하지만,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네 도시 건립자이자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Αἰγέυς(에게우스)와 같은 이름으로, ‘Protection’(보호) 혹은 ‘shield’(방패)란 의미를 갖고 있다. 로마자 표기로는 Aegeus, Aigeus, Aegeas, Aigeas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 이름에서 에게 해(the Aegean Sea)가 파생되기도 했다. 고대 프랑스어와 중세 영어에서는 Egeus로 표기되어 사용되었는데,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에서도 등장한다. 영어 발음으로는 Egeus[ɪdʒi : əs](이지어스)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 이름을 그리스어에 맞춰 ‘에게우스’로 표기한 사람은 김영목, 김재모, 오세곤 세 사람이다. 로마어에 가깝게 ‘아이게우스’로 표기한 사람은 이윤기-이다희가 유일하다. 영어 발음에 따라 ‘이지어스’로 적은 사람은 김재남(1964, 2007), 김갑순(1964), 김갑순(1981), 신정옥(1997), 장은경, 이태주, 봉현선 등 7명으로 가장 많다. 기타 표기도 눈에 띈다. 신정옥(1959)의 ‘이지아스’는 [ɸ]를 [ɑ]로 잘못 읽은 결과이다. 김병천의 ‘에제우스’는 로마어와 영어의 혼용으로 된 오류이고, 신정옥(2006), 김우탁, 최종철의 ‘이지우스’는 ‘t’ 발음을 로마식으로 붙여 생긴 결과이다. 김재남(1985)의 ‘이이지이어스’의 경우는 1986년 이후에 발표된 외래어 표기법에 장모음의 장음을 단음으로 표기한다는 2장 7조의 규정과 맞지 않다. 또한 이덕수가 ‘이저스’로 적은 것은 이중모음 [i : ə](이어)를 ‘여’로 잘못 처리한 결과이다. 외래어 표기법에는 [j]의 경우엔 ‘셔’의 발음

이 가능하지만, [dʒ]나 [ʒ]의 경우 ‘ㄷ’을 쓰지 않고 ‘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elevision’을 ‘텔레비전’으로 하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적는 것과 같다 (2장 표기법 세칙, 3조 2항).

4. Hermia는 Egeus의 딸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Lysander와 결혼하기 위해 숲 속으로 도망가는 용감한 여인으로, 그리스 신화의 영웅 Ἑρμῆς (헤르메스/Hermes)에서 파생된 영어 이름이다. 헤르메스의 이름의 뜻인 ‘전령’이란 의미를 같이 갖는다. 로마어로는 Hermia(헤르미아)로 사용되었고 영어권에서도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발음은 Hermia[hɜːrmiə](허미어)로 난다.

로마어 발음에 맞춰 ‘헤르미아’로 표기한 사람은 김병천, 김영목, 김재모, 오세곤, 이윤기-이다희 등 5명이다. 영어 발음대로 ‘허미어’로 표기한 사람은 신정옥(1997), 장은경, 이덕수, 봉현선이다. 이태주, 최종철, 김재남(1964, 2007), 신정옥(2006)이 선택한 ‘허미아’는 마지막 발음이 ‘어’와 ‘아’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발음기호를 원칙으로 한다면 ‘허미어’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신정옥(1959)은 장모음을 처리하기 위해 ‘허-미아’로 표기하였는데, 이것 역시 현행 표기법에는 맞지 않다. 김갑순(1981)의 ‘허어미아’나 김재남(1985)의 ‘허어미어’ 표기도 장음을 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김갑순(1964)과 김우탁의 ‘허머미아’의 표기는 특이하다. ‘어’를 ‘머’로 잘못 적은 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머’의 근거가 없어서 잘못된 표기이다.

5. Helena는 Demetirus를 사랑하는 아테네 여인이며, 연적인 Hermia와 친구 사이기도 하다. 이 이름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경국지색 헬렌(Helen; Ἑλένη)의 로마식 이름이다. 특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로마식 이름인 Helena(헬레나)가 영어권에서는 Helen 혹은 Helena로 사용되고 있다. 둘 다 의미는 ‘light’(빛)이다. 영어 발음은 Helena[héləna](헬러너)로 난다. 로마어 발음에 따라 ‘헬레나’로 표기한 사람들은 김갑순(1964)을 포함하여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정옥은 ‘르’ 음을 빠트리려고 ‘헤레나’로 잘못 표기했다. 장은경은 ‘헬레네’로 적었는데, 마지막 음인 [ə]를 ‘네’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영어 발음에 가까운 표기가 김갑순(1981), 신정옥(1997), 이덕수의 ‘헬러너’이지만 정확하게 ‘헬러너’로 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6. Lysander는 Hermia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장인 될 사람인 Egeus의 반대를 피하여 사랑의 도피를 하는 아테네의 젊은이다. 그의 이름은 기원전 405년에 아테네를 함락시킨 스파르타의 영웅인 Λύσανδρος(리산드로스)에서 비롯되었으며 ‘free man’(자유로운 자) 혹은 ‘liberator’(해방자)의 의미가 있다. 로마어로는 Lysandros(리산드로스)로 표기되고 영어로는 Lysander로 표기되고 [laisénder](라이샌더)발음된다.

그리스어나 로마어 표기에 맞게 적은 사람은 없었지만, 이윤기-이다희가 ‘뤼산드로스’로 가장 가깝게 표기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스어나 로마어(라틴어)의 경우 ‘y’는 ‘이’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 용례’의 라틴어 표기 원칙에 의하면 잘못된 표기이다.<sup>3)</sup> 오세곤, 김영목, 김재모의 ‘리산데르’와 김병천의 ‘리산드르’는 영어 표기와 로마어 표기의 중간선에 있지만 둘 다 부합하지 못한다. 김갑순(1981), 김재남(1985), 장은경, 신정옥(1997), 신정옥(2006), 이덕수, 최종철, 봉현선 등이 ‘라이샌더’라고 영어 발음에 맞게 표기하였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틀리게 표기한 사람들이 많다. 김재남(1964)은 ‘라이산더’라고 적었다. ‘라이샌더’로 표기한 사람들은 신정옥(1959), 김재남(2007), 김갑순(1964), 김우탁, 이태주인데, 이들은 [œ] 발음이 ‘에’가 아닌 ‘애’가 된다는 ‘외래어 표기 세칙’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7. Demetrius는 그리스어 Δημήτριος(데메트리오스)에서 비롯된 이름이며, Hermia를 사랑하는 아테네의 청년으로 나온다. 로마어 표기는 Demetrius(데메트리우스)이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농업과 결혼의 여신인 Δημητηρ(데메테르=Demeter)에서 유래되었다. 영어에서는 Demetrius[dəmi : triəs](드미트리어스)나 [dimí : triəs](디미트리어스)로 발음된다.

이 이름을 그리스 발음에 맞게 ‘데메트리오스’로 표기한 사람은 이윤기-이다희이다. 로마어에 맞게 ‘데메트리우스’로 표기한 사람은 김병천, 김영목, 김재모, 오세곤 등이다. 영어와 로마어 표기를 섞어 ‘드미트리우스’로 표기한 사람은 신정옥(2006)과 최종철 두 사람이며, 김재남(1964)는 ‘디메트리어스’로 적었다. 영어 발음에 맞게 ‘디미트리어스’로 표기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신정

3) 편집부 (2006: 202-202) 참조할 것.

옥(1959), 김갑순(1964), 신정옥(1997), 장은경, 김우탁, 이태주, 김재남(2007) 등 7명이었고, 김갑순(1981)과 봉현선은 ‘드미트리어스’로 표기했다. 김재남(1985)은 ‘디이미트리어스’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1986년 이전에 장음 표기를 하던 시절의 흔적이다. 이덕수의 ‘디미트려스’는 중모음 [iə]을 ‘이어’로 적지 않고 ‘여’로 줄여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영어의 표기’ 8조에 나타난 중모음은 [ou] (오)와 [auə](아우)를 제외하고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8. Philostrate는 Theseus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나온다.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의미의 φιλεω(필레오)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로마식으로 Philostratus(필로스트라투스)로 표기되고 영어식 이름 Philostrate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의 「기사 이야기」에 등장한다. Arcite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으로 이 이름을 사용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보통 3음절(FILL-uh-straight)로 발음되지만, 때로는 무운시(blank verse)로서 10개의 음절 숫자를 맞추기 위해 4음절(fill-uh-STRA-tay)로 발음되기도 한다. 따라서 Philostrate[filəstreit](필러스트레이트)로 주로 발음되지만 때로는 [filəstrátei](필러스트라테이)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윤기-이다희는 ‘필로스트라테스’라고 표현하여 로마어에 맞춰 표기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만, [u]의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해 아쉽다. 김병천과 오세곤은 ‘필로스트라테’로 김재남(1964)은 ‘필로스트레이트’로 적어서 영어식 표기를 로마식으로 발음하려는 생뚱맞은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김갑순(1964), 이덕수, 김재남(2007), 이태주는 영어 발음에 맞게 ‘필러스트레이트’로 표기하였다. 김갑순(1981), 김재남(1985), 장은경, 김우탁, 최종철, 봉현선 등은 ‘필로스트레이트’라고 하여 발음부호보다 철자에 맞춰 표기하였다. 또한 김영목과 김재모는 ‘l’(르)음을 빼고 ‘피로스트레이트’로 표기했다.

9. Titania는 요정의 여왕이며 Oberon의 부인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의 Τιτάν(타이탄)에서 나온 로마식 이름은 Titanus(티타니우스)이며, 영어식 이름은 Titania[títá : niə](티타니어)이며 셰익스피어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Titania는 천왕성(Uranus)의 위성 중 하나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1787년에 천

왕성에서 가장 큰 위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William Herschel)은 이 위성을 명명할 때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Titania의 이름을 사용했고, 두 번째 큰 위성에게는 Oberon의 이름을 주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títá : niə] (티타니아)로 발음되지만, 천왕성의 위성을 가리킬 때는 ‘티타니아’와 [tɑrtɛmiə] (타이테이니아)가 병행되어 사용된다.<sup>4)</sup>

이 이름을 그리스어나 로마어 발음으로 표기를 시도한 사람은 없다. 영어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한 사람은 없다. 신정옥(1997)은 천왕성의 위성을 가리킬 때의 표기 ‘타이테이니아’를 사용하였다. 비슷한 표기가 김재남(1964)의 ‘타이타니아’와 신정옥(1959), 김갑순(1964), 김재남(2007), 이태주가 사용한 ‘타이테니아’인데 이것들 역시 위성 이름을 지칭하는 것처럼 들린다. 김갑순(1981)과 김재모가 ‘티타니아’로 표기하였는데 장음을 표기한 것이 잘못이다. 김영목과 김우탁의 ‘티타니아’도 장음 표기의 문제와 마지막 음절의 발음이 잘못 기재되었다. 김재남(1985)과 이덕수의 ‘티테이니아’는 [ɑ : ]의 발음이 잘못 표기된 것이다. 김병천, 오세곤, 이윤기-이다희, 신정옥(2006), 최종철의 ‘티타니아’ 역시 마지막 발음을 발음기호와 다르게 하여 철자인 ‘a’에 집중하다가, 즉 전자법을 시도하다가 생긴 오류이다. 장은경과 봉현선의 ‘티테니아’ 역시 [ɑ : ]의 발음을 표기하는 데 오류가 있다.

10. Oberon은 요정의 왕이며 Titania의 남편으로 등장한다. 이 이름만 유일하게 그리스나 로마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이름이다. 고대 독일어 ‘elf ruler’(요정의 지배자)란 의미의 Alberich(알버리히)에서 유래되어 중세 유럽의 민속 이야기에서 Auberon(오베론)으로 등장하는 이름을 셰익스피어가 영어식으로 표기하여 사용하였다. 영어에서는 Oberon[óubəran](오버란) 혹은 [óubərən](오버런)으로 발음된다.

대개의 번역가들이 이 이름을 중세 불어의 발음을 따라 ‘오베론’으로 표기하였다. 김갑순(1981), 신정옥(1997), 이덕수만이 영어 발음에 충실하게 ‘오우버런’으로 표기하였지만, 중모음 [ou]는 ‘오우’가 아닌 ‘오’로 표기한다는 규정에 의거하면 이것도 틀린 표기이다. 김재남은 1964년도 번역에선 ‘오베론’으로,

4) [http://en.wikipedia.org/wiki/Titania\\_\(moon\)](http://en.wikipedia.org/wiki/Titania_(moon))

1985엔 ‘오우비이론’ 이라고 다소 엉뚱한 표기를 하였다가 2007년도의 번역에선 ‘오베론’으로 바꿨다.

## 6. 영어식 이름 표기

이렇게 그리스어 등 외국어 표기를 거쳐 영어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주어 번역가들이 서로 다른 표기를 하게 된 예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영어식 이름은 통일이 된 것은 아니다. 영어식 이름도 원인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영어식 이름 7개가 번역가들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표기되었는지 살펴보자.

	역자	1. 신정옥	2. 신정옥	3. 신정옥
	출간연도	1959	1997	2006
1	Bottom	보툼	보툼	보툼
2	Flute	후르트	플루트	플룻
3	Puck	퓍	퍼크	퓍
4	Peter Quince	피-타-퀸스	퀸스	퀸스
5	Snout	스나우트	스나우트	스나우트
6	Snug	스나구	스너그	스너그
7	Starveling	스타브린	스타블링	스타블링

	역자	4. 김재남	5. 김재남	6. 김재남
	출간연도	1964	1985	2007
1	Bottom	보툼	보툼	보툼
2	Flute	플루트	플루우트	플루트
3	Puck	파크	파크	퓍
4	Quince	퀸스	퀸스	퀸스
5	Snout	스노트	시노트	스나우트
6	Snug	스나그	스너그	스너그
7	Starveling	스타블링	스타아블링	스타블링

	역자	7. 김갑순	8. 김갑순	9. 김병천	10. 김영목
	출간연도	1964	1981	1977	1979
1	Bottom	보툼	보툼	봣툼	보툼

2	Flute	플루트	플루우트	플루테	프로우트
3	Puck	픽	피	푸크	파크
4	Quince	퀸스	퀸스	퀸체	퀸스
5	Snout	스나우트	스나우트	스노우트	스노우트
6	Snug	스너그	스너그	스눅	스누그
7	Starveling	스타아블링	스타아블링	스타르벨링	스타아블링

	역자	11. 김재모	12. 김우탁	13. 장은경	14. 오세곤
	출간연도	1982	1995	1993	1999
1	Bottom	보텀	보텀	보텀	보텀
2	Flute	플루트	플루트	플루트	플루트
3	Puck	파크	파	파크	피크
4	Quince	퀸스	퀸스	퀸스	퀸스
5	Snout	스노우트	스나우트	스노트	스나우트
6	Snug	스누그	사나그	스너그	스너그
7	Starveling	스타아블링	스타아벨링	스타블링	스타아블링

	역자	15. 이윤기- 이다희	16. 이덕수	17. 최종철	18. 봉현선
	출간연도	2005	2006	2008	2009
1	Bottom	보툼	보텀	바툼	보텀
2	Flute	플룻	프루트	플루트	플루트
3	Puck	픽	피크	픽	파크
4	Quince	퀸스	퀸스	퀸스	퀸스
5	Snout	스나웃	스나우트	스나우트	스노트
6	Snug	스너그	스너그	스닉	스너그
7	Starveling	스타블링	스타블링	스타블링	스타블링

1. Nick Bottom은 『한여름 밤의 꿈』에서 Theseus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연극을 준비하는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직업은 ‘weaver’(직조공)이다. ‘바닥’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밑바닥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대 영어에서는 ‘botm’으로 중세 영어에서 ‘botme’으로 표기되었다가 현대 영어로 오면서 ‘bottom’으로 정착되었다. 발음은 [baʊtəm](바툼) 혹은 [bɒtəm](보툼)으로 된다.<sup>5)</sup>

5) 이름과 성(Nick Bottom)을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많은 표기가 등장하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만 중심으로 다룬다.

‘Bottom’의 표기는 매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게 표기하였다. 발음 표기상으로 보면, ‘바텀’과 ‘보텀’이 둘 다 사용될 수 있지만 『한국외래어대사전』은 ‘보텀’을 취했다.<sup>6)</sup> 김재남(1964), 김갑순(1964), 신정옥(1997, 2006)은 ‘보텀’으로, 김병천은엔 ‘붓텀’으로 이덕수는엔 ‘보텀’으로, 김재남(2007), 이윤기-이다희, 이태주 등은 ‘보텀’으로, 최종철은 ‘바텀’으로 표기하였다. 외래어 표기법 세칙을 읽지 않고, 영어 발음만을 의존하여 표기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전사법을 따르더라도 외래어 표기법을 참조하여야 정확한 표기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은 미국영어보다는 영국영어를 따르기 때문에 ‘바’를 따르지 않고, ‘보’를 따르고 있다. 또 영어의 ‘t’에 해당하는 단어는 대부분 ‘트’ 혹은 ‘ㄷ’로 표기하기 때문에 ‘보텀’의 ‘텀’도 표기법에 맞지 않다. 김병천은 이름에 ‘tt’로 표기되어서 앞의 ‘t’를 받침 ‘ㅅ’으로 하고 뒤의 ‘t’를 ‘ㄷ’로 분리하여 표기하려고 한 것 같으나 이것 역시 맞지 않다.

2. Francis Flute는 폴무 수선공(bellows-mender)인데 악기의 이름과 같다. 이는 현악기인 ‘류트’(lute)와 연관이 있다. 중세 영어에서는 ‘floute’로 표기되었는데 그 어원은 고대 불어인 ‘flaute’에서 유래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프로방스어인 ‘flaüt’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순전한 영어는 아니지만 일단 외국의 이름이 아닌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에서 셰익스피어가 사람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어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이 이름은 [flu : tɪ](플루트)로 발음되는데, 외래어 표기 제 2장 세칙 중 영어의 표기법 1조 3항에 의하면, 단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는 받침으로 적지만 이중모음, 장모음 다음에 오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 나올 경우 ‘-’를 붙여서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루트’가 맞는 표기이다. 그런데 실지 번역본을 보면 다양한 오류가 등장한다. 신정옥(1959)은 ‘휴르트’로 표기하였는데, 제2장 외래어 표기세칙의 표1의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p’ 오 ‘f’를 모두 ‘ㅍ’로 표기한다는 점이 발표되기 전에 나왔으므로 잘못 된 것이고, 신정옥(2006)의 ‘플룻’과 이윤기-이다희의 ‘플룻’은 받침으로 사용한다는 사

6) 한미교육연구원(2009: 200) 참고

항에 어긋나고, 김재남(1985)과 김갑순의 ‘플루우트’는 장모음 표기법에 어긋난다. 김병천의 ‘플루테’는 ‘네’의 발음에 대한 근거가 없고, 김영목의 ‘프로우트’는 모음과 ‘르’ 음의 표기에 오류가 있고, 이덕수의 ‘프루트’에도 ‘르’ 음이 들어가지 않아 틀린 표기이다. 이외의 11개 번역본엔 ‘플루트’로 옳게 표기되어 있다.

3. 장난스런 요정 Puck은 영국의 민속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고대 영어에서는 ‘puca’로 표기되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의하면, 이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예컨대, 게르만어군 중 하나에서 왔거나 (고대 노르웨이어의 ‘puki’, 고대 스웨덴어의 ‘puke’, 아이슬란드어의 ‘puki’, 혹은 프리지아어인 ‘Puk’) 아니면 켈트어군 중 하나에서 왔으리라는 (웨일즈어인 ‘pwca’ 혹은 아일랜드어의 ‘púca’) 추정만 할 뿐이다. 7) 발음은 [pʌk](픽)으로 나는데, 영어표기법 1조 1항에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는 받침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면 ‘픽’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면에서 발음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k’를 받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다음의 표기는 모두 잘못된 것들이다. 신정옥(1997), 오세근, 이덕수의 ‘피크’, 김재남(1964, 1985), 김영목, 김재모, 장은경, 봉현선의 ‘파크’, 김병천의 ‘푸크’ 모두 잘못된 표기이다. 신정옥(1959)의 ‘픽’은 외래어 표기법이 바뀌기 전에 된 것인데, 현행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3조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 김우탁은 ‘팍’은 받침에 관한 사항은 맞지만 [ʌ]의 발음은 ‘ㅏ’로 적는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가장 짧은 단어인데도 11개의 번역본에 틀리게 표기되었고 옳게 표기된 것은 8개 밖에 되지 않는다.

4. Peter Quince는 목수이면서 5명의 동료 장인들과 더불어 Theseus와 Hippolyta의 결혼식을 위해 『피라무스와 티스비』(Pyramus and Thisbe)의 각본을 쓰고 감독을 하려는 인물로서 그 이름은 목수가 사용하는 나무 ‘췌기’라는 의미의 단어 ‘quines’ 혹은 ‘quoin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이름은 [pi : tər kwɪns](피터 퀴스)로 발음되는데, 다행히 김병천이 ‘퀸체’로 잘못 한 것 외에는

7)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puck> 참고

17개의 번역본에 바르게 되어있다. 특이한 것은 신정옥이 1959년도 번역본에서 ‘피-타-퀸스’로 표기했는데, 장모음 표기를 하이픈으로 하여 이름과 성을 가운데 점(·)으로 연결하였다는 점이다. 초기 번역을 했던 김재남(1964)도 가운데 점을 사용하였다. 물론 현행 표기법에는 이런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장모음을 표기하려는 흥미로운 발상이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이름 중에 이름 중간 이름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것이 걱정되고 가운데 점은 실지 외국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넣어서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5. 뺨장이(tinker)인 Tom Snout는 극 중 연극에서 피라무스와 티스비와의 사이에 놓인 담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대사가 8줄, 담의 역할로 하는 대사가 12줄로 총 20줄의 대사 외엔 역할이 없는, 다소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의 이름은 ‘돌출된 코나 주둥이’(the projecting nose and mouth)를 의미한다. 발음은 Tom Snout[tam snaut](탐 스나우트) 혹은 [tom snaut](툼 스나우트)로 된다. 영어의 표기법 1조 3항에 의하면, 장모음 다음에 오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 나올 경우 ‘-’를 붙여서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나우트’가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이윤기·이다희의 ‘스나우트’는 잘못된 것이다. 김재남(1985)의 ‘시노트’는 발음에 유의하지 않아 생긴 오류인데, 그 이후에 발간된 본인의 다른 번역본에는 모두 제대로 고쳤다. 김병천, 김영목, 김재모의 ‘스노우트’ 이태주의 ‘스너우트’와 김재남(1964), 장은경, 봉현선의 ‘스노트’는 이중모음 등을 간과하여 생긴 오류이다. 그 외 나머지 12개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맞게 표기되었다.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지만 ‘Tom’에 대한 표기가 발음상으로 보면 ‘탐’과 ‘툼’이 둘 다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영어 발음인 ‘툼’으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다.

6. Snug는 ‘가구장이’(joiner)로 극 중 연극에서는 사자의 역할을 하며, 그의 이름은 ‘안락하고 아늑한’ (comfortable and cozy) 의미를 갖는다. Snug[snʌg] (스너그)라고 발음된다. 영어의 표기 2조에 [b], [d], [g]를 적을 때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를 붙여 적는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

에 ‘스너그’가 맞는 표현이다. 김재남(1964)은 ‘스나그’로 적어 가운데 [ʌ]가 ‘어’로 발음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최종철은 Snug를 ‘스닉’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신정옥(1959)은 ‘스나구’로 표기하였는데 마지막에 ‘우’ 발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잘못된 것이다. 김우탁은 ‘사나그’로 하여 ‘아’에 대한 발음의 근거가, 김영목과 김재모는 ‘스누그’로 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중간에 ‘우’ 발음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 밖의 13개 번역본에는 ‘스너그’로 맞게 표기되어 있다.

7. Robin Starveling은 양복장이(tailor)로 극중 연극에서 달빛의 역할을 하는 코믹 캐릭터이다. 그 이름에는 ‘굶주린 사람’ (One that is starving or being starved)이란 의미가 있다. 발음은 [rɑːbɪn stɑːvlɪŋ](라빈 스타블링)과 [rɒbɪn stɑːvlɪŋ] (로빈 스타블링) 둘 다 가능하다. 김우탁은 ‘스타아벨링’으로 표기했는데 아마 전자법에 의존하다 [-vel-]의 부분을 ‘벨’로 표기하여 생긴 오류인 것 같다. 김병천은 ‘스타르벨링’이라고 표기했는데 ‘r’(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오세곤은 ‘스타아블링’으로 장모음을 표기했는데 1986년 이후에 발표된 영어표기법 1조 7항에 의거하여 장모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목, 김재모는 ‘스타아브링’이라고 했는데, 이는 장모음에 대한 오류와 더불어 ‘블’의 발음이 빠져 있고, 신정옥(1959)은 ‘스타브린’으로 표기했는데 이 역시 ‘블’의 발음이 빠져 있어서 잘못된 표기이다. 나머지 번역본에는 맞게 표기되어 있다.

## 7.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주요인물 17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이를 옮긴 18명의 번역가가 놀랍게도 서로 상이한 표기를 하고 있다. 신정옥, 김재남, 김갑순 등 초기에 『여름밤의 꿈』<sup>8)</sup>을 번역한 사람들도 해가 바뀌면서 자신의 표기를 몇 차례 바꾸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대개의 번역가들은 1986년에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번역을 감행했

8) 1960년대 초반까지는 신정옥, 김재남, 김갑순 모두가 제목을 『여름밤의 꿈』으로 표기하였다.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전에 번역을 시도한 사람들 역시 1958년에 발표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번역가 중 특이한 경우는 이윤기-이다희 부녀(父女) 번역가의 표기이다. 이윤기는 『길 위에서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2002)를 저술한 바 있고, 2000년에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제1권을 편집 및 번역하여 대한민국 번역가상을 받기도 했다. 2010년 8월에 그가 세상을 떠났어도 두 달 뒤인 10월에 마지막 5권이 딸 이다희에 의해 발간되었다. 게다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등 그리스와 로마에 연관된 작품을 많이 저술 및 번역 활동을 하였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사랑시리즈 3부작으로 『한여름 밤의 꿈』, 『겨울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역하기도 한 베테랑 번역작가이다. 그래서 그리스어에 가까운 표기를 선호한 것 같다. 번역가로서나 작가로서나 대가였던 그도 외래어 표기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특히 『문화의 오역』이란 저서에서 이재호는 이윤기의 번역본들을 비평하면서, 영어의 표기와 그리스어의 표기에서 일관성 없이 표기환 부분들에 대해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 ‘Ide’(이데)를 ‘Ida’(이다)로 잘못 표기했다든가, ‘Hekabe’(헤카베)를 헤쿠바로 잘못 적었다는 등 9) 여러 곳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재호조차도 외래어 표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같은 쪽에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이 ‘휘기에이아’(Hygieia)로 적어야 되는데 ‘휘게이아’(Hygeia)로 잘못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은 Hygieia(Ἥγεια)나 Hygeia(Ἥγεια)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 이름은 라틴어로 Hygēa 혹은 Hygīa로 사용되고 영어로는 ‘Hygieia’([haidʒi : ə] 하이지어)로 사용되고 있다. 10) 이 외에도 그리스어나 로마어의 표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평을 하였지만 많은 경우 이재호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튼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영국의 문화와 문학에 일가견이 있는 대학자들도 표기법에는 일관성이나 확실한 근거가 없이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구난방의 표기를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한국 독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사랑 받게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몇 가지

9) 이윤기 (2005: 193) 참고

10) <http://en.wikipedia.org/wiki/Hygieia>

원칙을 정하여 번역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인명, 지명, 기타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스어에서 시작하여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옮겨진 이름들에 대한 변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식 이름: 그리스 이름을 음역하여 로마자로 옮긴 경우나 그리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꾼 경우, 또 그리스 이름을 뿌리로 하여 파생된 이름: Theseus(Θησευς), Demetrius(Demeter: Δημητηρ), Egeus(Aegeus: Αιγεύς), Helena(Helen: Ελενη), Hermia(Hermes: Ερμης), Philostrate(philos: φιλος), Titania(Titan: Τίταν), Hippolyta(Hippolytos: Ιππόλυτος), Lysander(Lýsandros: Λύσανδρος)
2. 다른 외래어(독일)에서 온 영어식 이름: Oberon(Alberich)
3. 영어식 이름: Peter Quince, Puck, Nick Bottom, Francis Flute, Tom Snout, Snug, Robin Starveling

위 세 종류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할 때 고려해야 될 원칙을 정리해야 한다.

첫째, 현지음인 그리스어 발음을 따를 것인가? 라틴어 발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어 발음을 따를 것인가? 이를 결정하게 되면 다음 결정이 기다린다.

둘째, 현지음을 따를 경우에는, 그리스어는 그리스어 발음대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뀐 것은 로마어(라틴어) 발음으로, 영어 이름은 영어 발음으로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이름을 서로 부르는 배우(특히 영어권 배우)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영어발음을 따를 경우에는, 그리스어 이름이나 로마어 이름이나 영어 이름이나 모두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발음하던 영국식 표현대로 표기한다. 배우들에게는 좋지만, 그리스나 로마 문화에 익숙한 비영어권 청중에게는 전혀 다른 인물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나, 아무리 그리스의 아테네가 배경이라고 해도 『한여름 밤의 꿈』은 영국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썼고 영국인들에 의해 영국영어의 발음으로 영국무대에 올려 졌고, 영국식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영국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인명을 영국 발음에 의거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아테네(Aθῆναι; Athens)나 테베(Θῆβαι; Thebes) 같은 지명에 대해서는 이미 굳어진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전사법(轉寫法)을 따를 것인가? 전자법(轉字法)을 따를 것인가? 외래어 및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옮기는 전사법(transcription)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표기법일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 특히 외국어, 중에는 발음부호가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발음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자를 보고 옮겨 적는 전자법(transliteration)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김정우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전사법을 원칙으로 하되, 철자와 발음이 비교적 일치하는 언어들 경우에는 전자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sup>11)</sup> 본고에서도 역시 전사법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법을 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여름 밤의 꿈』에 등장하는 영어 이름들은 거의 발음부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어와 로마어로 된 이름은 대부분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자법을 사용하고 한글로 옮기는 것이 용이하고 무난하다. 여기에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그리스어와 라틴어 표기에 관한 일부 세칙을 참고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현실적이면서 정확한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영어 발음의 경우에, 영국식 영어 발음을 따를 것인가? 미국식 영어 발음을 따를 것인가? 작가가 영국인이고 영국작품이기 때문에 영국발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영어 표기법은 영국 발음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졌다. 영국식 발음을 국제음성기호에 근거하여 전사법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기법일 것이다. 국제음성기호를 참조하기 위해 ‘다음’(Daum) 온라인 사전<sup>12)</sup>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곳에는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같이 제공되는데 주로 영국식 발음

11) 김정우 (2007, 277)

12)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발음 제공 사이트(<http://engdic.daum.net>)에는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분리되어 음성이 제공되고 있어서 두 발음 차이를 구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한국어판 야후와 영어판 야후 사이트(<http://kr.search.yahoo.com>)를 같이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발음 도움 전문 사이트인 <http://www.howjsay.com> 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을 택하면 가장 가까운 전사법 표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미 외래어로 굳어진 단어들의 표기와도 일치한다. 예컨대, ‘Bottom’은 미국식 발음에 의하면 ‘바텀’으로, 영국식 발음에 의하면 ‘보텀’으로 표기되지만, 우리나라에 외래어로 이미 정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영국식 발음인 ‘보텀’이다. 그러나 점차 미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언어가 세계언어로서의 위상을 갖춰가는 현실을 볼 때 미국식 발음이 점차 영국식 발음을 대신하여 표기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보텀’이 ‘바텀’으로 표기될 것이다.

여섯째,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 발음을 따를 것인가? 현대 영어의 발음을 따를 것인가? 셰익스피어 시대는 연극이 모두 운율을 맞춘 무운시(blank verse: 각운이 없는 약강 5보격)로 대부분 이뤄져 있기 때문에 매 줄마다 5보 10음절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발음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축약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현대 무대에는 이러한 시 형태를 살리기 보다는 다소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하던 발음에 가깝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한 예로서, 극중에서 연예 담당자인 Philostrate의 이름은 운율에 따라서 때로는 3음절(FILL-uh-straight)로 때로는 4음절(fill-uh-STRA-tay)로 발음된다.<sup>13)</sup>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번역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더 정확하게 이름을 표기하거나 발음할 때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외래어와 외국어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인가? 같이 취급할 것인가? 외래어는 ‘줄리어스 시저’, ‘셰익스피어’, ‘아테네’ 같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서 한국어처럼 사용되고 또 용례집에도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표기에 통일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은 사실상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용례집을 찾을 수도 없고, 발음기호도 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널리 사용되는 외래어의 형태를 모델로 삼아, 새로운 외국어는 그 현지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생각과 방법들을 통해 얼마든지 외국의 고전을 번역할 때 발견되는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전혀 이

13) <http://en.wikipedia.org/wiki/Philostrate>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에 연관된 모든 학회, 기관, 연구소들이 태만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제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셰익스피어를 위시한 주요 문학작품을 외래어 표기법과 기타 용례집을 통해 정리하여 모범 표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 학회와 연구소, 기관 등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향후 번역될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과 기타 주요 문학 작품들의 한글 번역에서 인명 및 지명의 표기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에 의해 이런 표기가 정리되면, 가나다 순과 알파벳 순서대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리하고 색인을 만든 뒤, 현행 외래어 표기법과의 일치되는 것과 다소 문제가 되는 점들을 정리하여 일반 독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의 고전을 읽는데 필수적인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한글표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과 용례집이 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인명과 지명, 이미 굳어진 외래어와 새로운 외국어와, 로마화 된 표기와 영어 표기와의 차이점과 연계점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여 고전과 현대인과의 접점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런 과정을 통해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 및 기타 외국어 표기의 문제점들을 파헤쳐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와 작업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더 많은 외국 작품을 올바르게 번역하여 일반 독자에게 알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고전번역 작업이 촉진되고, 일반 독자들도 고전을 더 친숙하게 읽어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정우 (2002) 「번역의 관점에 본 국어 외래어 표기법」, 『한국 문학사의 전개 과정과 문학담당층』 편집부, 서울: 국학자료원, 173-199.
- \_\_\_\_\_ (2007) 『국어어문규범 365가지』,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리의도 (2005)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 서울: 예담.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원홍연 (2009) 『국어 외래어 표기의 변천과 형태적 의미적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 연구』 1(1): 229-248.
- 이재호 (2005) 『문화의 오역』, 서울: 동인.
- 이희승 · 안병희 (2005) 『새로 고친 한글 맞춤법 강의』, 서울: 신구문화사.
- 조영미 (2001) 「셰익스피어 번역의 어제와 오늘: ‘햄릿’을 중심으로」, 『안과 밖』 제 10호, 서울: 영미문학연구회.
- 편집부 (2006) 『새로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북피아.
- 한미교육연구원 (2009) 『한국외래어대사전』, 서울: 동양서적.
- 황재성 (2006) 『외래어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Shakespeare, William (1992)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David Bevington (ed), New York: HarperCollins.

## 『한여름 밤의 꿈』 번역본(연도별/작가별)

1. 신정옥 역 (1959) 『여름 밤의 꿈』, 서울: 동화문화사.
2. 신정옥 역 (1997) 『한여름 밤의 꿈』, 전예원 세계문학선 307, 4판, 서울: 전예원.
3. 신정옥 역 (2006) 『한여름 밤의 꿈』, 전예원 세계문학선 307, 개정판, 서울: 전예원.
4. 김재남 역 (1964) 『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전집 2권, 서울: 휘문출판사.
5. 김재남 역 (1985) 『한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전집, 서울: 을지서적.

6. 김재남 역 (2007) 『베니스의 상인 외』, 하서명작선 62, 10쇄, 서울: 하서.
7. 김갑순 역 (1967) 『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전집 3권 희극편 (1), 6판, 서울: 정음사.
8. 김갑순 역 (1981) 『한여름 밤의 꿈』, 삼성판 세계문학전집 36, 셰익스피어/희극선, 중판, 서울: 삼성출판사.
9. 김병천 역 (1977) 『한여름 밤의 꿈』, 서울: 상서각.
10. 김영목 역 (1979) 『한여름 밤의 꿈 /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전집 5권, 서울: 문공사.
11. 김재모 역 (1982) 『한여름 밤의 꿈』, 서울: 자이언트 문고.
12. 김우탁 (1995) 『한여름 밤의 꿈』,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3. 장은경 역 (1998) 『한여름 밤의 꿈』, 월드 베스트 34, 서울: 혜원출판사.
14. 오세곤 역 (1999) 『한여름 밤의 꿈』, 서울: 예니.
15. 이덕수 역 (2006) 『한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15, 2쇄, 서울: 형설.
16. 최중철 역 (2008) 『한여름 밤의 꿈』, 세계문학전집 172, 서울: 민음사.
17. 봉현선 역 (2009) 『소설로 읽는 셰익스피어 6대 희극 - 한여름 밤의 꿈』, 서울: 혜원.

<인터넷 사이트>

<http://dictionary.reference.com>

<http://encyclopedia.thefreedictionary.com>

<http://engdic.daum.net>

<http://en.wikipedia.org>

<http://kr.search.yahoo.com>

<http://search.daum.net>

<http://www.behindthename.com>

<http://www.howjsay.com>

<http://www.oxforddictionaries.com>

[Abstract]

**A Study of the Hangeul Orthography of Loanwords  
in Translating Classical Literary Works:  
Focusing on Shakespeare's *A Midsummer Night's Dream***

Hur, Myung soo  
(Handong Global University)

We often find difficulties in the orthography of loanwords and foreign words, partly because the current Hangeul Orthography of Loanwords (enacted in 1986 and amended several times) is not for us to understand and apply easily, partly because we are not provided with sufficient examples and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orthography. Thus many translators have difficulty in writing loanwords and foreign words in Hangeul, especially when they translate the Western classical works into Korean, such as Shakespeare's works. *A Midsummer Night's Dream*, for example, has many characters whose names derive from Greco-Roman myths along with the English names. The mixture of Greek names, Romanized names and English names at the same work often cause us lots of difficulty in writing and transcribing those names into Hangeul.

I selected 18 translations of *A Midsummer Night's Dream* to figure out how those names have been transcribed into Hangeul. The result turned out very surprising, for almost all the names are put into Hangeul differently by each translator. For example, the name of Theseus(Duke of Athens) has been translated differently into Korean: 테세우스, 티이셔스, 티시어스, 티시우스, 시슈우스, 시시어스, 디슈스, etc.

In order to get rid of those difficulties, I would like to suggest tips to supplement the current Hangeul orthography of loanwords.

First, one should more seriously understand and apply the Hangeul Orthography of Loanwords in translation of classical works.

Second, one needs to trace the forming process of name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Greco-Roman myths and literature, and Romanized and transformed into English names.

Third, all the names of the characters in the play shall be put into Hangeul according to the pronunciation of each name in the British English accent, because *A Midsummer Night's Dream* is a British drama, even though it is set in Ancient Athens and has many Greek and Roman names such as Theseus, Egeus, and Demetrius.

Fourth, Greek and Latin words should be put into Korean by the method of transcription based on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 and then, if needed, by the transliteration method, which uses the closest corresponding letters of a different alphabet or language.

▶ Key Words: transcription, transliteration, Greco-Roman names, *A Midsummer Night's Dream*, Classic literature, Loanwords, Foreign words

허명수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hms@handong.edu](mailto:hms@handong.edu)

관심분야: 고전문학 및 셰익스피어 번역, 외래어 표기법, 문학 이론, 번역 이론

논문투고일: 2010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